

오지마을 폐교가 '병원되던 날'

병원 불자련 의사·간호사 의료봉사 내과-안과-치과-한의원 등 진료



누렇게 익은 벼들이 저마다 고개를 숙인 넓은 들판 가운데 100호가 채 안 되는 농촌마을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마을 노인들이 1일 아침 일찍부터 폐교가 된 구만리 초등학교에 삼삼오오 모여있다. 약도 없고 병원도 없는 이곳 외딴곳에 의사들이 직접 찾아와 무료 진료를 한다는 마을 이장의 안내방송을 듣고서 하던 일손을 놓고 모인 것이다.

국립의료원, 서울국립정신병원, 춘천국립정신병원, 국립경찰병원, 경희의료원, 동국의료원 등 6개 병원 의사 10명, 간호사 27명을 비롯해 총 58명의 전국 병원불자연합회(회장 김주호) 의료 봉사단원들은 더욱 분주히 움직인다.

"할머니는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배도 아프고 다리가 아파 걸지도 못할 지경이야"

진료가 시작되자 안내데스크의 간호사가 할머니들에게 진료

받을 과를 지정해 준다.

"할머니는 내과와 한방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세요"

이날 무료진료소를 찾은 사람은 모두 100여명. 안과 32명, 치과 32명, 내과 64명 한방부인과 5명, 한의과 63명, 정신과 3명 등 중증진료를 받은 사람까지 합하면 200여명이나 된다. 장기적인 의료사업으로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극에 달해 있는 지금, 의료봉사에 참여한 연합회 회원들은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적 사상을 실천한 진정한 불자의 모습을 보여줬다.

중국의료원 진료과장 김동일 씨는 "의료봉사는 의료현장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인술을 베풀어 병을 치료하고 또한 그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다"고 의료봉사의 의미를 밝혔다.

머칠전 배추밭에 물을 주다 허리를 삐었다는 박금순(62) 할머니는 아파도 병원이 있는 춘천까지 나갈 엄두를 못내고 있었다. 한방과에서 침을 맞은 박할

나온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밝히고 점심공양을 준비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금방 밥에서 따온 싱싱한 가지 몇 개를 내밀었다.

김주호 병원불자 연합회 회장은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회원들이 불자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낀 것 같다"며 "앞으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의료봉사를 해나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고 연합회 조직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천=김두식 기자 (doobi@buddhania.com)

'달라이라마 방한' 시민운동 확산

각계 인사 선언문 발표...아셈 포럼서 결의문도 채택

달라이라마의 방한허용을 촉구하는 방한준비위(이하 준비위)의 활동이 전국적인 서명운동과 함께 대표들의 선언문 발표, 외국인들의 방한지지 의사 표명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9월 28일 명동성당 입구에서 '달라이라마 방한 성사와 문화주권 회

복을 위한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고, 1백여 종교·사회단체에서 서명운동을 벌여오고 있는 준비위는 11일 오후 2시 탑골공원 앞에서 '경진년 2000 문화독립선언' 행사를 연 후 명동까지 행진, '삼전도의 국치'를 주제로 퍼포먼스를 펼치고 주룽지 총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을 중국대사관에 전달한다.

이와 별개로 지난달 29일부터 학계·법조계 인사 각 33명이 방한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으며, 2일과 5일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문화예술인 각 33명이 '달라이라마 방한 성사와 문화주권 회복을 염원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각계 인사들은 달라이라마의 방한허용을 '문화적 주권행사' 차원으로 해석하면서 정부의 유보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선언문은 중국의 압력으로 방한허용 방침을 철회한 정부의 태도를 '국가주권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준비위는 조만간 방승언론·여성·영화·종교계 등 다른 분야에서도 각 33인 대표들의 선언문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0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아셈(ASEM, 아시아유럽정상회의)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셈 민간포럼에 정식으로 참여해 토론을 벌여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정상회의 기간중인 21일 '국민행동의 날'로 선포해 시위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개성 영통사 복원 가시화

북 추진위 기초공사 김동현교수등 방북답사

의전 스님이 출가·입적한 성지 개성 영통사가 스님의 열반 900주기를 맞아 복원된다. 북한은 현재 '영통사복원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이미 복원설계도를 마련하고, 이에 맞춰 일부 기초공사를 시작했다.

이 같은 사실은 9월 12일부터 19일까지 북한 사회과학원 초청으로 방북, 영통사 터를 비롯한 개성 일대의 유적을 둘러본 김동현(동국대), 이형구(선문대) 교수에 의해 확인됐다.

영통사 복원에 앞서 고고학적 차문형식으로 방북한 두 교수는 "북한은 영통사가 천태종의 성지인 만큼 복원사업에 천태종을 비롯한 남한 불교종단의 관심과 경제적 지원을 부탁했다"고 전했다.

복원 설계도에 따르면 영통사는 주간을 8동, 회랑, 비각, 3체의 승방, 의전 스님의 부도를 비롯한 부도지구 등으로 옛 모습을 되찾는다. 특히 이번 방북 답사에서 김 교수는 절 입구의 돌다리 흔적 부근에서 북한의 연구진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정자 터를 발견해 정자가 복원하도록 권유, 설계도에 추가될 전망이다. 오종욱 기자

혈액암 처녀에게 헌혈증 모아주고 '언니-동생'

아름다운 인연

잠들었던 24살의 가을하늘. 은총 짓밟으로 물들었던 6년간의 삶. 그러나 오늘 바라본 하늘은 파랗고 싱그러웠다. 박혜경(30)씨는 파란 하늘을 느끼게 해 준 언니와의 인연이 눈물겹도록 고맙기만 하다.

박씨가 재생불량성빈혈이라는 혈액암 진단을 받은 것은 바로 24살 가을. 한 달에 두 차례 수혈과 정기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처지가 됐을 때 이미 삶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언니라고 부르는 이금강심 보살(48)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년여 전. 이보살이 평

소 같은 동네에 살던 도반으로부터 박씨의 딱한 사연을 전해듣고는 헌혈증 100장을 전해 주면서부터다. 10년이 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보살은 우연히 알게 된 한 대학교수로부터 헌혈증을 얻어 박씨에게 주었다. 헌혈증 한 장만 있으면 수혈비는 반 값. 박씨에게는 생명이니 다름없는 소중한 것이었다. 박씨는 이보살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이 만나 자연스럽게 언니와 동생이 되었다.

하지만 이보살은 1년여동안 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박씨에게 전화를 했다. 혹시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 때문... 그랬던 이보살의 마음이 요즘엔 더 편할 않다. 박씨의 병세가 악화돼 잇몸에서 한 번 출혈이 시작되면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한



달에 1백여만원 이상 드는 수혈비를 혼자 감당해나기 힘들다는 것도 안다.

"물수이식만 하면 나을 수 있을텐데... 조직이 맞는 사람이 곧 나타날거야." "언니, 미안해요. 그리고 늘 신경써줘서..." 말을 잊지 못하는 박씨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보살의 눈에도 어느덧 눈물이 고인다.

011-718-3715(박혜경), 한빛은행 319-193981-02001(이금주 박혜경) 한영우 기자

전국 비구니회관

11일 상량식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우)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수서동 744 비구니회관 신축 현장에서 비구니회관 상량식을 봉행한다.

비구니회관의 근본도량이 될 비구니회관은 대지 1천2백40평에 연건평 2천5백58평의 지하2층 지상3층으로 건립된다. 반야용신(배) 모양을 한 현대식 건축물로 조성될 회관에는 대법당과 교육관, 대강당, 강의실, 체력단련실, 불교문화실, 도서관, 탁아실 등이 갖춰진다.

회관은 내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도필선 기자



대한불교 선악인 연합회 회원들은 3일 안동 흥사에서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대법회를 봉행했다.

민주당 연등회원

사찰 행사마다 '적극'

민주당 국회의원 불자들의 모임인 연등회(회장 김기재)가 최근 사찰에서 열리는 각종 법회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불교계 민심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 총재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김기재·조성근·장경연의원 등은 9월29일 열린 불교방송 개국 10주년 기념 합창단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2일 쌍계사 법회 6일 통도사 개산대제, 4일 부산 법안사 호국영령 수륙대제, 8일 제주 관음사 현산대제에 참석했다. 한영우 기자

산악인련 남북통일 기원 법회

3일 안동, 1천명 동참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총회 손현수 이하 연합회)는 3일 연합회 지정수행도량이자 효행실천의 교육도량인 안동 흥사(주지 계오) 창건 3주년 및 남북평화통일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파계사 성전암 조실 철웅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스님과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 이의근 경북도지사, 권오승 국회의원, 정관용 전 내무부장관, 허화평 전의원, 안동시장 정홍호, 전국산도

회 선진규 회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산악인 불자 1천명이 동참했다.

태종과 함께 시작된 이날 법회에서 철웅스님은 법어를 통해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새천년 개천절을 맞아 조국의 의미를 되새기자"며 "우리 모두가 모두 불성을 가진 부처님임을 깨닫고 용서와 사랑과 화해를 생활화해 이 땅을 불국토로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서는 제 2회 서안요행상 수상식이 함께 거행됐다. 김두식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역사공학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한벗 아보타 센터

아보타 마스터 / 동서통역사 손인국 · 아보타 마스터 / 임상심리 전문가 김정현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길상사 불교문화 강좌

맑고향기롭게의 근본도량인 길상사(회주 법정)가 '불교 바르게 이해하기' 불교문화강좌를 개설한다.

10일부터 12월29일까지 3개월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2~4시 열리는 문화강좌에서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비롯 불자예법, 참선 실수실함 등의 강의를 진행될 예정이다. 02)3672-5945 도필선 기자

16일 아셈 종교분과 회의

아셈 2000 민간포럼 종교분과 국제회의가 16-1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강당에서 '세계화와 영성, 그 대안적 가치'를 주제로 열린다.

조계종 사회부,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 정토회 등 50여개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국제회의는 인간과 생태를 위한 종교·영성적 대안을 모색한다. 김재경 기자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로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0047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특필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층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藥也**(연년 불로 선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자 내용

- 1 인간의 길흥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성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 10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 11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 12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으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4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내용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흥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 하는가?
- 4 태아영가의 천도는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 천축, 연축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수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삼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 334-9490, 334-9491
야간 : (031) 706-3060